

우포늪

경상남도 창녕에는 우리 삶과 더불어 함께한 자연습지 우포늪이 있다. 혹시 우포늪을 아직 여행해 보지 못한 독자가 계신다면 2004년 새해 계획에 우포늪 여행을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지. 아직 때 이른 감이 있지만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.

우포(牛浦)라는 이름은

우포에는 우항산(牛項山)이라는 산이 있다. 이 산 모양이 마치 소가 늪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'우항산'이라 부르고, 이 소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'소목'이라고 하며, 소를 풀어놓고 풀을 먹이던 이곳 늪을 '소밭'이라 불렀다고 한다. 그런데 일제 때 소밭을 한자로 쓰다 보니 뜻 그대로 우포가 되고 말았다.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우포보다는 소밭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. 참고로 목포(나무벌)는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나무들이 떠내려 오던 곳이라서, 사지포(모랫벌)는 모래가 많아서, 쪽지벌은 크기가 작다고 해서 붙은 이름들이다.







3

- ① 70만 평 우포늪에 찾아 온 겨울.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장대나뭇배가 우포늪 겨울 정취를 한껏 북돋운다.
- ② 우포늪은 여름 잔치를 끝내고 나면 마치 철새들을 맞을 꽃단장하듯이 대대독 주변을 억새로 풍성하게 치장을 한다.
- ③ 우포늪에서는 장대나뭇배를 타고 나가 '가래'라는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다. 가래로 고기를 잡는 것은 우포늪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. 물 위에 장대나뭇배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.
- ④ 여름철 우포늪은 온갖 물풀들로 뒤덮여 거대한 초원을 방불케 한다. 대자연의 향연 그 자체다.
- ⑤ 물옥잠은 이름 그대로 '물에 뜬 옥비녀'라는 뜻이다. 꽃이 피기 전 모습이 옥비녀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.

4



5



- ① 가시연 : 잎 지름이 2m를 넘는 것이 있는 가시연 잎은 우리 나라 식물의 잎 가운데 가장 크다. 자태가 화려하고 웅장하나 낮에만 잠시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꽃을 보기가 어렵다.
- ② 노랑어리연 : 우리 나라 각지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아침에 우포늪 주변을 산책하며 만나는 노랑어리연꽃은 탄생의 축복과도 같다.
- ③ 나사말 : 잎이 가늘고 길어 1m가 넘는 것도 있다.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며, 물 밖으로 솟아오른 암꽃은 수정이 이뤄지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열매를 맺는다.
- ④ 연
- ⑤ 애기부들 : 꽃이 무척 부드러워 부들이라 부른다.
- ⑥ 통발 : 물속에 사는 식충식물 그리고 예쁘게 핀 통발꽃
- ⑦ 자리풀 : 잎이 자라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리풀이다. 잎 뒷면에 스티로폼 같은 조직이 있어 잎이 쉽게 뜯는다.



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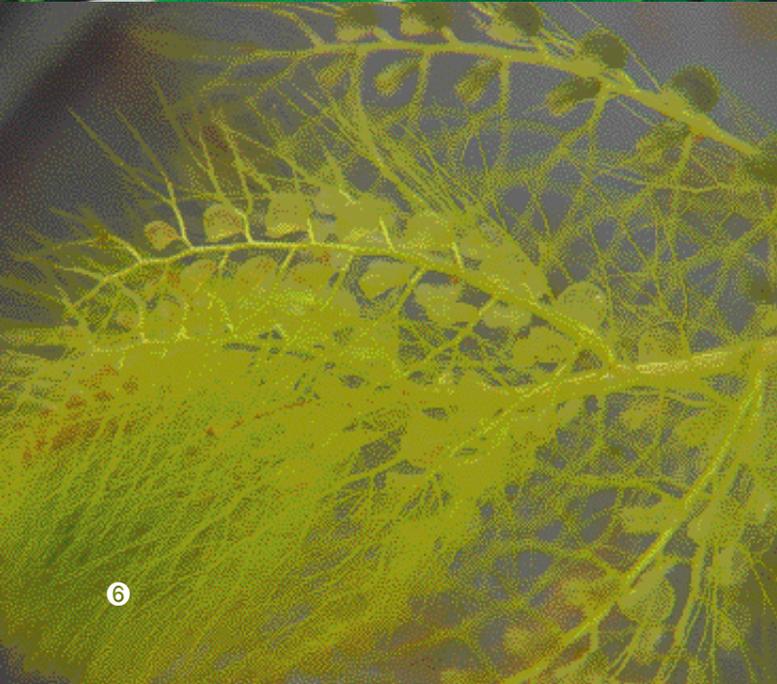
3



4



5



6



7